

# 2024년도 1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의견반영 결과

지역 (개최일)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서울 (2024-3-28)	<p>1. &lt;총선 특집 딜라이브 뉴스&gt;는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을 깊이 있게 다루며 지역민에게 지역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등 지역 밀착형 뉴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도할 계획이 있는지?</p> <p>: 선거 이후에도, 우리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 상황을 취재 보도할 예정이며, 당선자 대담을 통해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임.</p>
	<p>2. &lt;오페라하우스&gt;는 그 성격이 분명하여 참신한 콘텐츠로 평가됨. 관람객의 반응을 추가한다던가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청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p> <p>: 이미 촬영이 많이 진행된 부분이라 남은 회차에 시청자 반응이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시즌2 등 추가 제작이 결정 된다면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p>
	<p>3. &lt;지혜의 숲 시즌2&gt;는 시즌1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완성도가 높지만, 세계 역사 등 인문학 소재를 다루다보니 지역밀착성은 떨어져 보임.</p> <p>: 지역적 특색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인문학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는 콘텐츠 임.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적 이슈보다는 고품질의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 제작되었음.</p>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
	<p>1. 현재 중장년층 시청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역채널의 시청층을 다양화하고 확장하려는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지?</p> <p>: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지역채널의 시청률을 건언하며 지역채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좋음.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젊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유입하기 위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음.</p>
	<p>2. 콘텐츠의 진정한 가치는 그 콘텐츠가 얼마나 널리 소비되는지에 달려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콘텐츠의 소비 플랫폼 다양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p> <p>: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의 노출을 극대화하려 함. 숏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 활용하고 계속 확대할 계획임. 이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p>

지역 (개최일)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경기 (2024-3-21)	<p>1. 전체 뉴스 구성과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지상파 뉴스와 차별화가 부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를 캐주얼하게 기획을 한다던가 11시 뉴스와 5시 뉴스를 다르게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역 뉴스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유익한 뉴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 향후 뉴스 개편시에 위원회의 고견을 참고해 구성을 개선해 보겠음.</p> <p>2. &lt;오페라하우스&gt;는 지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오페라 버스킹이라는 독특한 기획으로 매우 신선함. 그러나 버스킹 장소의 이색적인 매력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아 아쉬움. 또한,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장소를 섭외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흥미를 늘려나갈 것을 제안함. : 버스킹 장소가 충분히 부각되게끔 개선하겠음. 또한 추가 제작이 결정된다면 경기 지역 지자체 추천 장소를 섭외해 지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있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음.</p> <p>3. &lt;아카이브 다큐 '서울 그 곳은'&gt;은 사라져가는 지역을 기록한다는 점이 참신한 콘텐츠로 평가되는데, 서울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 경기 지역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처음 기획물로 제작되었으나 프로그램 내용과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최근 정규물로 제작함.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를 아우르는 풍부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p>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
	<p>1. 지역채널 콘텐츠의 커버리지를 넓히고, 뉴미디어 확장에 대한 고민은 중요한 과제임. 다양한 시청자층에게 도달하고, 콘텐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 지역채널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소비될 수 있도록 계속 시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젊은 세대를 포함한 더 넓은 시청자층에게 도달해 콘텐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p> <p>2.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쉽게 소비하고 공유되며 확산시키기 위해 숏폼 제작을 많이 하고 있음.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부터 숏폼 포맷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시청자 접근성 증대를 위해, 숏폼 포맷을 고려해 제작하도록 노력 하겠음.</p>